

# 에이피알, 디바이스·화장품 ‘락인효과’ 노린다

美·英에 ‘부스터 프로 X2’ 진출  
에너지 전달력·화장품 흡수율 ↑  
신기능 3가지 추가… 총 7가지 모드  
메디큐브 스킨케어 협업효과 기대



신제품 ‘부스터 프로 X2’ /에이피알

에이피알이 가파른 외형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성장 동력을 재정비한다. 화장품 사업 매출 확대와 함께 주춤했던 뷰티 디바이스 사업을 회복하기 위한 신제품 ‘부스터 프로 X2’를 글로벌 핵심 시장에 전면 배치한다.

11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주요 이커머스 채널을 통한 뷰티 디바이스의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낸다. 미국과 영국의 틱톡샵, 아마존 등에 차세대 뷰티 디바이스 ‘부스터 프로 X2’가 입점한다.

이 제품은 기존 ‘부스터 프로’ 출시 후 약 2년 반 만에 선보이는 세대 교체 모델이다. 에너지 전달력과 화장품 흡수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핵심 기능 4가지에 신기능 3가지를 추가해 총 7가지 모드를 제공한다. 특히 기기 표면을 두 개 영역

으로 구분해 각 영역에서 서로 다른 모드를 동시 구현할 수 있다. 모드별 강도 역시 5단계에서 6단계로 늘려 피부 상태와 사용 목적에 따라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아울러 에이피알은 자사 뷰티 디바이스 판매와 화장품 브랜드 메디큐브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협업 효과를 극대화

하는 구상이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메디큐브 스킨케어와 차세대 디바이스를 묶어,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가 화장품을 연쇄 구매하게 만드는 ‘글로벌 락인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미국 틱톡샵의 ‘메디큐브 US 스토어’의 경우 5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의 메디큐브 글로벌 계정의 팔로워 수는 139만 명에 달해 마케팅 기반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지난해 매 분기 최대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K뷰티 사업으로 성과를 내 분기 매출은 600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1분기에는 5934억원의 매출과 152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3%, 174% 급증했다. 이 중 화장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분기 62%에서 올해 1분기 76%까지 늘어 외형 성장을 견인했다.

이와 함께 전체 매출 내 뷰티 디바이스 부문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4%(909억원) ▲2분기 28%(900억원) ▲3분

기 27%(1031억원) ▲4분기 22%(1229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 22%(1327억원)를 기록했다. 분기 매출 규모 자체는 1000억 원 안팎을 유지하며 완만하게 성장했으나 화장품 부문이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상대적인 존재감은 약화된 모습이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1년 34% ▲2022년 30%에서 ▲2023년 41% ▲2024년 43.3%까지 치솟아 에이피알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K뷰티 영역을 ‘뷰티 테크’로 확장해 독보적인 기업 가치를 쌓은 것도 이 시기다. 이후 2025년 뷰티 디바이스 매출 비중은 27%으로 화장품이 뷰티 디바이스를 앞지르고 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에이피알은 뷰티 테크 기업이라는 정체성을 다져왔고 글로벌 시장에서 화장품뿐 아니라 홈 뷰티 디바이스 분야에서도 소비자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미국과 영국 주요 플랫폼 출시를 통해 글로벌 소비자들이 에이피알의 뷰티 디바이스를 보다 다양한 채널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 GC녹십자 미래 팬데믹 대응 위한 mRNA 백신전략 공개

자제적인 인공지능(AI) 기술력과 생산 인프라를 융합한 ‘백신 주권’ 확보 전략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독자적 파이프라인 구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GC녹십자는 지난 10일 ‘서울 팬데믹 X서밋 2026’에 참여해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자사의 mRNA 백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 국제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팬데믹을 주제로 다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글로벌 협력과 신속한 백신 개발 및 공급을 논의했다.

GC녹십자는 자체 mRNA-LNP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GC녹십자는 2019년부터 AI 답러닝 기술을 활용한 mRNA-LNP 플랫폼을 연구해 왔다.

특히 ‘코돈 최적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단백질 발현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mRNA 서열을 설계하는 데 쓰인다. 인체 세포가 유전 정보를 읽고 빠르게 읽어 내도록 유도에 적은 양으로도 면역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

또 mRNA 의약품의 생체 내 전달 효율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AI 기반의 지질나노입자(LNP) 구조 및 조성 최적화 기술도 응용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는 GC녹십자의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은 비임상 연구에서 글로벌 백신과 동등한 수준의 면역 반응을 유도하고 동시에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 1상 첫 시험자 투여를 완료했고 오는 하반기 임상2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정하 기자

# LG화학, ‘유트로핀’ 제품 안정성·효능 입증… 신뢰도 ↑

(성장호르몬 브랜드)

소아내분비 전문의와 ‘LGS 심포지엄’  
저신장증 환자 대상 장기 관찰 결과  
신제품 ‘유트로핀에코펜48’ 소개



LG화학 소진언 연구개발부장이 ‘제21회 LGS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다. /LG화학

LG화학이 성장호르몬 브랜드 ‘유트로핀’ 제품군의 안전성, 효능 등을 입증한 장기 관찰 데이터를 공유하며 브랜드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

LG화학은 소아내분비 전문의와 함께 제21회 LGS(LG Growth Study)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내 저신장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트로핀 치료 장기 관찰의 중간 분석 결과와 신제품 ‘유트로핀에코펜48’ 경쟁력을 공유했다.

LG화학은 2012년부터 2035년까지 1만여 명 한국 소아 환자에서 성장호르몬 유트로핀의 장기 투약 데이터 확보를 위해 ‘LGS’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등록 환아 수는 8000여 명을 기록

했다.

LG화학은 국내 최장 기간, 최대 모집 규모의 실제 임상 근거 데이터를 확보해 저신장증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서울대병원 이영아 교수, 서울아산병원 김지혜 교수가 각각 ▲연구 13년간의 장기 안전성 및 유효성 분석 결과 ▲

성장호르몬 결핍증, 특발성 저신장증 치료 접근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의 LGS 안전성 데이터 중간 분석 결과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0.2%로 낮게 관찰됐고 전반적으로 여러 안전성 지표가 양호하게 유지됐음을 설명했다.

투약 4년간의 신장 표준편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저신장증 적응증에서 지속적인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사춘기 이전에 치료를 시작한 환자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개선 경향이 관찰됐다.

김 교수는 성장호르몬 결핍증과 특발성 저신장증에 대해 7년간 성장호르몬 치료를 장기 노출한 결과를 분석했다. 갑상선 기능, 혈당 등 내분비 및 대사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고 국내 환자들의 장기 성장 반응은 해외 주요 장기 관찰연구 결과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정하 기자



지난 5월 27일~6월 1일 서울 성수 연무장길에서 ‘아테시’ 모델들이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풍선을 들고 홍보에 나섰다. /한미사이언스

## 한미사이언스 서울 성수 ‘아테시’ 팝업

한미사이언스가 K뷰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5월 27일~6월 1일 서울 성수에서 더마 화장품 브랜드 ‘아테시’ 팝업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0일 공개한 아테시의 브랜드 철학과 제품 가치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 성수 길거리에 펼친 캠페인 풍선부터 퍼포먼스까지 오감으로 체험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행사장 내부에서는 브랜드 첫 제품인 ‘블랙 펄 PDRN 네오 세럼’을 집중 소개하며 경험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운영했다. 이 제품은 한미사이언스의 독자 원료를 적용한 고농축 항노화 제품이다. 인체적용시험에서 꺼진 볼과 눈가의 탄력을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한국인부터 방한 외국인까지 약 1800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하 기자

# “간편한 젤 제형으로 퇴행성 관절염 완화” 조아제약 ‘달샷 에너지젤’, 도핑 안전성 인증

‘콘드로파워1200 경구용젤’ 선봬



광동제약은 퇴행성 관절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일반의약품 ‘콘드로파워 1200경구용젤’ (사진)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콘드로파워1200경구용젤은 사람 연골과 유사한 구조의 소 연골 유래 성분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이하 콘드로이틴)’을 국내 최대 1회 함량인 1200mg 함유했다. 경증 및 중등도 퇴행성 관절염에 효능·효과가 있으며, 천연 감미제인 자일리톨을 첨가해 부드러운 단맛을 구현함으로써 복용 순응도를 높였다.

또한 흡수가 빠른 경구용 젤 타입 제형으로,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고령층도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콘드로이

틴 제제 관련 SCIE급 논문에 따르면, 1일 1회 경구용 젤(1200mg)은 1일 3회 캡슐(각 400mg) 대비 복용 편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통증 감소 효과도 더 빠른 것으로 확인됐다. 젤 타입 제형은 투여 14일차부터 증상이 24% 감소했으며, 91일차부터 증상이 50% 감소하고 완화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드로파워1200경구용젤은 1일 1포씩 복용하면 되며, 10포·30포·60포 단위로 구성돼 섭취 기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퀵리스트’ 등재… 객관적 검증

조아제약은 ‘달샷 에너지젤’이 도핑 안전성 인증 프로그램 ‘퀵리스트’에 등재됐다고 11일 밝혔다.

퀵리스트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지정한 금지 약물 포함 여부를 분석해 도핑 안전성을 검증한다. 독일 퀵리스트 육체대학교 예방도핑연구센터가 성분을 검증하고 독일 올림픽 훈련센터에서도 활용한다.

달샷 에너지젤은 하이엔드 스포츠보충제로, 이번 등재를 통해 동화작용 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AAS), 각성제 등 금지 약물 성분에 대한 불검출을 확인받았다.

아울러 해당 제품에는 조아제약의 연구·기술력과 국내 마스터즈 마라톤 최다

우승 기록(통산 137회)을 보유한 러닝 전문가 정석근 감독의 실전 노하우가 집약됐다. 운동 초반부터 후반까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페이스 유지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초로 베타인 2000mg과 글루타민 2000mg을 각각 고품량으로 배합하고 벌꿀·로열젤리·화분 등 자연 유래 원료를 더했다. 물엿, 액상과당, 설탕, 카페인을 첨가하지 않고 말토덱스트린과 유기농 아가베시럽 등을 처방했다.

조아제약 관계자는 “퀵리스트 등재를 통해 도핑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운동선수 및 러너들이 보다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서 제품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